

목포시, 용해지구 문화복합시설 '어울림도서관' 이달 착공

북카페·장난감도서관 등 조성...129억 원 투입 내년 3월 준공 "문화육구 충족 문화시설 기능 수행해 문화도시 면모 빛낼 것"

목포시가 지역의 대표적 아파트 밀집지역인 용해지구 주민들의 문화육구 충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 목포시는 용해지구에 목포어울림도서관을 오는 2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129억8600만원의 사업비

가 투입된다. 이 곳은 하나의 건물에서 다양한 계층의 문화육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하의 주거지 주차장은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1층은 북카페와 문화교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은 동아리실, 멀티강의실 등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한다. 3층은 일반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학습실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용해동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용역을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019년 10월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 주차장이 추가됐

고, 주차면 29개를 조성할 수 있는 지하 1000㎡가 증가하면서 연면적도 당초 3000㎡에서 4432㎡로 늘어났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하 주거지 주차장이 반영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목포어울림도서관으로 정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육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기능을 수행해 문화도시 목포의 면모를 더욱 빛낼 수



목포시 문화복합시설 '어울림도서관' 조감도. (사진=목포시 제공)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홍석봉 영광부군수, 고병원성 AI 통제초소 점검

"농가-행정 서로 힘 합쳐 청정 영광 사수"



영광군은 전국 8개시·도 69개 농가에서 특히, 전남에서 13건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홍석봉 영광부군수는 최근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AI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AI의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오리농가 통제초

소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서 홍석봉 부군수는 가금농가주를 만나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AI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막중한 상황이지만 농가와 행정이 서로 힘을 합치면 청정영광을 사수할 수 있다"라고 하며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영광군은 거점소독시설 1곳과 가금농가 입구 통제 초소 7개소를 운영하며 가축 관련 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 49명을 지정하여 1일 1회 전화예찰과 주1회 방문점검을 실시하는 등 7년 연속 고병원성AI 미발생 청정영광을 사수하기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대당 보조금 700만원 올해 총 15대 지원키로

무안군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9인승~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며 금년에 총 15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특례조합이 신설되어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군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환경과(☎061-450-5558)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접수

다음달 3일까지 업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심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음식 문화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

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입식테이블을 교체하거나 화장실·주방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음식점 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다. 사업비는 군비 5천만원으로 영업자

가 시설개선 자금의 50%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하였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3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3월부터 플라워푸드 교육장 본격 운영

오는 11월까지 총 12개 과정 276명 모집



함평군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조리 실습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진행될 이번 교육

은 지역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향토음식을 활용한 제과·제빵 교육을 비롯해 농업·농

촌 식문화교육, 피크닉도사락 만들기 체험 등 1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모집인원은 총 276명으로 센터는 각 과정별 모집 시기에 맞춰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콘텐츠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 군 농업기술센터 내 827.48㎡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플라워푸드 교육장을 지난해 건립했다. 교육장에는 조리 실습실을 포함해 평가실, 휴게실, 144석 규모의 다목적홀 등이 갖춰져 있으며 올해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또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